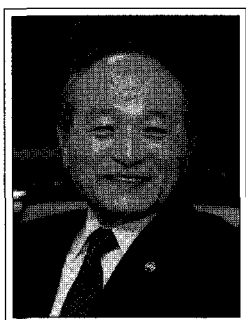




## 원자력을 통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길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



“

Science Korea 추진  
운동을 통하여 과학 기술 문화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국민 모두가  
원자력을 이해하고 같이 호흡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원자력 정책의 수립과  
안전 규제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를  
더욱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

**존** 경하는 원자력 전문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미국·프랑스·일본·중국 등에  
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자력계 인사 여러분!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가 열아홉번째를 맞  
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 원자력계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  
인 참여로 본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였습  
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나라는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한국표준형원전의 안전 향상, 제4세  
대 원자력 시스템과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의 국제  
공동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정적 생산 체계 구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아울러 오늘 원자력기술상과 국제협력상을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주제인 「복지 사회를 위한 원자  
력」은 원자력을 통해 깨끗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복지에 성큼 다가서자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 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전문인 여러분.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세계적으로 443기가 가동되어



전기의 17%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려는 연구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학·농업·공업적 이용도 그 응용이 더욱 확대되어 이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선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나라는 미래형 혁신 원자로와 원자력 수소의 국제 공동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용 의약품 개발, BT·NT 등과 접목하여 신과학 기술 창출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과학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국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금년의 표어를 “과학 기술이 미래를 결정합니다”로 선정하고 다양한 과학 기술 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1일 Science Korea 추진 운동을 통하여 과학 기술 문화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국민 모두가 원자력을 이해하고 같이 호흡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원자력 정책의 수립과 안전 규제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를 더욱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연차대회를 통해 원자력의 미래와 원자력 안전 그리고 공동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 등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